

발제

연구자는 현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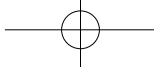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김기흥

유기농업의 현장

- _지역공동체 복원 운동 : 일본 아시가라 노노카이 유기농업 통한 지역 순환 실현 노력
- _동북태국 전통농업 복귀 : 동북태국은 태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과연 정말 빈곤한가?
- _베트남 호이안 유기농 투어리즘 : 200년 넘는 농업지역에서 유기농업인지도 모르고
지역환경 고려한 전통적 농법 실천
- _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 : 빈곤국 중 하나, 여성의 자립을 위한 소규모대출(micro credit)
유기농 묘목 판매로 자립 실현, 자존감 회복

유기농업의 정의

- _유기농업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운동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부하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음
- _좁은 의미: '화학적으로 합성된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농업'
- _넓은 의미: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부하를 주지 않으며 식의 안전과
지역 환경 보전을 지향하는 농업'
- _여기에는 생산자만 아니라 소비자인 지역주민도 포함되며, 지역 커뮤니티(공동체) 전체의 기능
이 지속가능해야 함
- _여기서는 유기농업을 이러한 넓은 의미로 다루기로 함



유기농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_유기농업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 (생물다양성, 공정무역, 동물복지, 경관보존, 토종종자, GMO 반대운동 등)와 가치의 반영

_기존의 비용, 생산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_유기농업은 사람의 ‘삶, 생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실천 및 운동으로 볼 수 있음

_이것은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Capability Approach)가 사람의 Well-being(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것과 일치함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

_케이퍼빌리티(Capability)란 사람이 ‘달성가능한 기능(functioning)의 여러가지 조합’ (Amartya Sen, 1988)을 말함

_‘무엇이 가능한가’ (doing),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being) 하는 선택지의 폭을 나타냄

_다양한 선택지가 증가함으로써 삶이 좋아지게 됨

_개발, 발전(development) = 자유(freedom)의 확대

_빈곤과 불평등, 개발(development)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아마르티아 센, 1998년 노벨경제학상)

케이퍼빌리티 리스트와 ‘연대’

_누스바움(Nussbaum) 리스트: 1.생명 2.신체적 건강 3.신체적 보전 4.감각·상상력·사고 5.감정 6.실천 이성 7.연대 8.자연과의 공생 9.유희 10.환경의 컨트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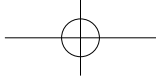
_7. 연대(affiliation) A.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관심을 보이는 것.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교류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입장을 동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 정의와 우정의 쌍방에 대해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유기농업 생산자 소비자 ‘연대’

_생산자와 소비자는 단순히 유기농산물을 매매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 관계

_소비자는 생산자의 농업 사정과 생활을 지지

_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을 지지



- _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대가 지역에 밀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의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생산자 소비자 제휴운동, 현재도 큰 축
 -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역이 지지하는 농업)
 - 프랑스를 중심으로 AMAP (Associations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 소농을 지키는 조직)
 - 스위스의 ACP (Agriculture Contractuelle de Proximite: 생산자 소비자 근접 계약 농업) 등

프랑스 AMAP 그룹 AMAPop 몽트레이유(Montreu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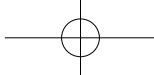
- _AMAP: 2001년 프랑스 남부에서 발족
- _2010년 1,200개 이상의 그룹으로 증가
- _일인의 생산자와 소비자 그룹 체제
- _계절계약판매, 가격과 생산계획, 배송방법을 소비자가 함께 결정
 - 티에르루루(33세)
 - 총면적 : 50ha (채소15ha, 곡물35ha)
 - 채소 65종류
 - 6개의 AMAP에 농산물 제공
 - 50명 소비자, 12명의 자원봉사소비자
 - 6주에 한번 미팅

동북태국 지역 유기농업그룹 카라신(Kalasin)

- _국왕의 '자족경제(Sufficiency economy)' 제창
- _전통농법그룹 2000년부터 시작, 2013년 100명
- _불교를 바탕으로 한 자립적 생활을 지향
- _비용삭감과 수확증대 효과
- _지역 농협과 정미소 활용
- _지역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연대

베트남 니코니코 농장 부온마투옷(Buon Ma Thuot)

- _일본인 시오카와씨(28)
- _2010년 5월에 시작
- _0.53ha, 10명의 노동자, 4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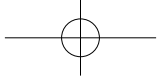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 _채소 20-30종류
- _호치민 소비자 150명 직거래, 패밀리마트
- _소비자그룹 ‘채소모임’ 결성
 - 3개월에 한번 미팅, 20여 명 참가
 - 스터디 투어, 유기농장 방문 등 연대 도모
- _지역 활동 확대: 지역 학생 및 유치원 지원
- _참가형인증시스템 도입(거버넌스의 형태)

유기농업: 거리의 문제 / 생산자와 소비자

- _직접 만나야 한다
- _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_오리는 제초 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 _매기농법은 생태적, 순환적 의미를 가지며...
- _화학비료를 대신해서 퇴비를 만들어...
- _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목표로 유기농에 도전하며...
- _농민 개인에 보다 집중하게 된 이유
- _직접 현장에서 이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
- _외부의 선입견과 잣대로 판단하면 안되는 이유
- _유기농업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가능한지’, ‘어떤 상태가 실현되었는지’ 개인의 삶 자체에 집중하고자 함

현장과 연구자: 거리의 문제 / 현장과 연구자

- _직접 만나야 한다
- _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_이론은 이런데, 실상은 어떠한지...
- _정책은 이런데, 필요한 건 어떤 것인지...
- _지원 자체가 필요한 건지...
- _개인의 보다 나은 삶 자체에 집중한 정책...



마을학회○○○에 거는 기대

- _현장에 답이 있다!
- _그러나 현장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
- _현장에서 보고도 다시 지역주민(대상자)과 확인하는 작업 필요
- _마을학회○○○는 현장과 연구자의 소통 창구로
- _애매한 것은 애매한 대로...(불완전순위, 아마르티아 센)
- _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애매한대로) 답을 얻어나가자.